

Gender Difference in the clinical management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Investigators

*이기홍 · 안영근 · 채성철 · 김종현 · 성인환 · 김영조 · 허승호 · 최동훈 · 홍택중 · 윤정환 · 류제영 · 채제건 · 김두일 · 채인호
구본권 · 김병욱 · 이내희 · 황진용 · 오석규 · 조명찬 · 김기식 · 정경태 · 이명용 · 김종진 · 정육성 · 정명호 외 KAMIR 연구자

Background : The first on-line registration of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patient (KAMIR) has been carried out throughout 40 primar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centers in Korea with support of Korean Circulation Society since Nov 2005. **Methods :** Between Nov 2005 and June 2006, 4905 patients (4326 patients only described sex; 3004 male, 1322 female; mean age = 64.3±13.5 years) were enrolled in KAMIR. The treatment strategy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field of acute 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EMI) and non-ST segmen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NSTEMI). **Results :** The female group was older (61.2±13.3 vs. 71.4±10.1 years, $p<0.01$). In the initial selection of treatment strategy of STEMI, primary PCI was more commonly done in male but conservative treatment was more commonly done in female (69.8% vs. 68.3%, 15.0% vs. 19.8%; respectively, $p=0.008$). During hospital stay, PCI regardless of its subtype was more commonly done in male than in female with both STEMI and NSTEMI (STEMI: 89.1% vs. 84.9%, $p=0.004$; NSTEMI: 74.7% vs. 63.5%, $p<0.001$). The rate of stent implantation was similar between the groups in both STEMI and NSTEMI. The type of stent was similar between the groups in STEMI, but male underwent higher drug eluting stent implantation (92.2% vs. 90.8%, $p=0.022$). **Conclusions :** In the selection of initial treatment of acute MI in Korea, females are treated more conservatively than males.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혈중 마그네슘 수치와 임상적 의의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센터, 광주원광대학교병원

황선호 · 정명호 · 홍영준 · 윤남식 · 이상록 · 홍서나 · 김계훈 · 박형욱 · 김주한 · 안영근 · 조정관 · 박종춘 · 강정재 · 박옥규

배경 : 마그네슘의 섭취는 대사성 증후군의 발생과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마그네슘의 저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생과 연관되며, 제2형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환자들에서 세포내 세포외 마그네슘의 저하가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주요심장사건(major adverse cardiac events: MACE)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방법 :**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상동맥질환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받은 3,300 명 환자 중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측정된 872명 환자를 대상으로 MACE가 발생한 25명을 I군으로, MACE가 발생하지 않은 847명을 II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의 임상적 특성, 위험인자, 혈중 마그네슘치의 차이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 양 군의 임상적 진단에 따른 분류를 보면 안정형 협심증이 I군 52%(13/25), II군 78%(662/847), 불안정형 협심증 및 비ST 분절상승 심근경색증(NSTEMI)이 I군 24%(6/25), II군 7%(68/847), ST 분절상승 심근경색증(STEMI)이 I군 24%(6/25), II군 13.8%(117/847)이었다. 양 군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은 차이가 없었다. 양 군간 좌심실 구혈률, 백혈구 수치, LDL-cholesterol 치 등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혈청 Mg 수치는 I군 1.83±0.21, II군 1.91±0.71mg/mL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혈중 마그네슘치는 MACE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